

충남지역의 19세기말 20세기초 사회운동의 통일교육적 시사 연구

A Study on Unification Education Current Affairs of Social Movement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the Chungcheongnamdo Region

박 찬 석*

Chan-Seok Park

국문요약

통일의 길은 동학 운동과 3·1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지속하여야 할 평화통일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교육은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진 동학 운동과 만세 운동이 거국적인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일제 탄압에 대한 독립운동의 격렬한 항거와 평화운동이었던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많은 민족 선각자들은 친일파들이 엄존했던 시기에도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민족의 결기를 갖고 독립으로 가는 거국적 길을 조선 말기부터 20세기 초에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 정신의 길이 오늘의 통일로 가는 길과 일맥상통하는 거국적인 참여의 길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운동과 동학혁명운동 그리고 의병운동, 3·1운동, 신간회 운동의 정신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운동을 계속 이루어졌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이 장기적으로 독립과 자주정신에 입각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단이 장기화되고

<http://doi.org/10.56475/ygsr.2024.29.1.1>

논문투고일 : 2024.04.30. 논문심사일 : 2024.05.20. 게재확정일 : 2023.06.04.

*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E-mail: pckmy@gjue.ac.kr)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있지만 언젠가의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지속적 확장성은 지역 민족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방적 논의 속에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독립, 통일, 충남 동학혁명, 의병활동, 3·1운동, 신간회, 통일교육

목 차

I. 들어가며	III. 충남 사회운동의 통일교육적 시사와 논의
II. 1890년대~1920년대 충남지역 활동과 인물	IV. 결론

I. 들어가며

충남 지명은 1896년(고종 33) 13도제 실시에서부터이다. 현재 8개 시(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7개 군(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을 관할하는 충청남도는 1963년 전라북도로부터의 금산군 이전, 1989년 직할시 승격에 따른 대전의 분리,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으로 그 공간 범위가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행정구역상 변화는 그 관할구역만이 아닌 명칭에서도 확인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명칭이 현 충남지역 지명과 비슷한 적도 많았다. 이처럼 충남은 충청의 주요한 지역적 사상적 위치를 갖고 있다.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 · 충공도 · 청공도 · 청공도(淸公道) · 공청도(公淸道) · 공홍도(公洪道) · 홍충도(洪忠道) · 충홍도(忠洪道) · 공충도(公忠道) 등

현 충청지역을 포함하는 범위로 여러 차례 지명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8도 체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충남지역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충남 도민들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가시적, 비가시적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던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의미를 부여하여 상호 소통한 흔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격동의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오늘날 분단 시대에 되새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건들은 동학농민운동의 격동기, 위정척사운동, 3·1운동 그리고 신간회 운동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말 1890년대에서 1920년대의 충남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인물들을 파악하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한다. 즉 격동기의 충남 인물과 사건 속에서 지금의 통일교육이 어떠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1890년대~1920년대 충남지역 활동과 인물

현재 충남 도민들의 경험은 행위 주체로서 감각이나 사고를 통해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럴 때 공간상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대상을 ‘경관(landscape)’이라고 하고, 이들 경관을 통해 구성되는 보다 면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단위를 ‘장소(place)’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장소에 대한 경험(장소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경관에 대한 경험(경관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충남에서 1890년대 하면 떠올리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실천적 운동과 의병 전쟁으로 파악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과 공주 우금치(티) 전투

공주는 격동기에 마다 중대한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 1892년 10월 동학교단과 공주지역 민중들에 의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된다. 최초로 최제우 교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을 해결해 달라는 공주취회가 열린다(박맹수·정선원, 2015: 12-13). 이 신원 운동은 서학의 공식적 승인 이후 동학에 대한 승인과 1890년대 초에는 낱알이 불법적인 침탈을 실시하는 일본 상인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 사회운동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게 되는 거점으로 공주지역에서는 민중적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세력들이 최시형의 포교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공주지역에서 계속 출몰하기 시작하였다(정선원, 2022: 49-51). 1892년 동학 신원교조 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 우금티¹⁾ 전투의 진폭은 1864년 최제우의 순교 이후 1871년 영해교조 신원운동의 실패와 탄압 속에서도 전개되어 왔다. 30여 년간 최시형은 공주를 포함한 전국적 포교의 확고함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최소 잡아도 1894년 일 년 내내 조선 군·현(지금의 시·군)의 절반에서 일어났고, 조선 인구의 25%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 대사건이다. 공주는 이인전투부터 시작해서 효포전투, 우금티 전투까지 22일 동안(음력, 10월 22일 ~ 11월 14일) 전투를 벌인

1) 우금티의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글에서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부른다. 또한 국가사적지 제387호 공주 우금티 전적은 공주 사람들이 예부터 불러왔던 데로 '우금티'로 호칭한다.

곳이다(정선원, 2022: III). 공주전투는 당시 조선 최대의 중앙 관군의 무력과 일본군 그리고 충청감영군이 투입되었다. 동학농민군은 남접 전봉준 부대와 북접 손병희 부대, 그리고 공주지역 농민군 등의 북접연합군이 투입되어 충청·전라·경상·강원·경기도의 동학농민군들이 함께 투쟁했던 곳이다(근대한국 개벽종교 공부모임, 2024: 9).

전봉준의 공초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의 공주전투 시기에는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사건”에 기인한다. 이러한 국권 침탈의 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났다. 또한 일본군은 1894년 6월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기로 조선 관군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공주전투는 농민군 대 일본군·관군 연합군의 투쟁인 항일 구국전쟁이었다. 일본군은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기존의 조선 관군의 무기를 거두어 조선 관군을 무력화시킨다.

일본군은 또한 경복궁 점령 이후 청나라와 싸우면서 8월 17일 평양전투에서 승리하고 9월 25일 이후 만주가 전쟁터가 되자, 농민군 진압에 조선군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 관군을 재조직한다. 조선 관군 재조직의 직접적 시작은 조선 정부 내에 농민군 진압 기구인 「양호도순무영」의 설치(9월 22일경)로 서울에 520명 규모의 농민군 진압을 위한 지휘부를 두고, 지방으로 2,500명 규모의 중앙군을 파견한다(정선원, 2022: 57-60).

당시 공주는 충청남북도의 도청(감영) 소재지로 농민군이 공주를 점령한다면, 집강소 통치로 사실상 점령된 전라도와 함께 조선 남쪽의 서부가 농민군 수중에 들어가는 사건이었다. 22일간의 공주전투에서 큰 싸움은 음력 10월 23일 이인전투,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효포전투,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금티 전투로 볼 수 있고 11월 14일 소성

전투를 끝으로 일단락된다. 특히 효포전투와 우금티 전투는 병풍처럼 솟은 공주 산줄기를 일본군·관군 연합군이 방어하여 농민군이 넘을 만한 고개인 능티와 우금티를 두고 공방전을 벌인 전투이다.

우금치(티) 전투에 참여한 동학농민군들은 조일 연합군의 우세한 무기의 포탄과 총탄에 진격하지 못했다. 동학농민전쟁의 가장 큰 전투이자 승패의 분수령이 된 결전이었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으로는, 크게 보유 무기의 심각한 열세, 연합전선 실패로 인한 병력 분산, 훈련받지 못한 농민군과 지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반봉건 반외세’의 길을 걸었던 동학혁명의 공주 우금티 정신은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항거이며, 세밀하게 일본 내부에서 이루어진 정한론의 실체를 만천하에 들어나게 한 경종이었다(나카즈카 아키라(中塚明), 2023: 41-42). 항간에는 동학혁명으로 일본이 조선을 참전하여 청일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일본은 1894년 전부터 치밀하게 한반도 진출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당시 공주 전투에 참전하는 관군·일본 연합군이 갖고 있던 무기의 화력이 동학농민군에 비해 월등했다. 농민혁명군의 총은 심지에 불을 붙여 쓰는 화승총으로 사정거리가 불과 100보에 분당 2발을 발사하는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창으로 싸워야 했다. 그에 반해 일본군은 사정거리가 400-500보를 넘고 분당 12발을 쏠 수 있는 신형 소총을 보유하고 있었다.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을 사상적 무장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동학농민혁명이 공주에 미친 영향은 이후 공주가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친일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어두운 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털 무장된 동학혁명군에게 일제의 신식부대는 충청과 호남 일대의 농민군 대학살 전쟁을 전개하였다. 전 근대화된 농민혁명군이 근대적 군대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일본은 치밀한 침략의 의도를 감추지 않았고, 조선 사회와 개화파들의 무력감에 친일 뿌리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체적으로 동학농민군은 의지는 천지를 덮고도 남았지만, 현실 속에서 힘을 모으지 못하였다. 일본의 참전은 동학 농민혁명군의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아도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투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음력 11월 중순 결국 농민혁명군은 패주하였고 계속 추격을 받으며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였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등의 농민군 정예부대들은 재기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한 민중의 투쟁은 이후 계속 의병 투쟁 그리고 3·1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된 의의를 갖는다(梶村秀樹. 1986: 39-40).

2. 의병 운동

1) 임한주(林翰周)와 청양

임한주는 근대사 독립운동가로 1871년(고종 8)에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하셔서 1954년에 사망하셨다. 본관은 평택(平澤)이시며 저작 『홍양기사』·『과변집』 등을 저술하여 홍주의병에 대해 기술하셨다. 학자이며 독립운동가, 교육자였다. 자는 공우(公羽) 또는 공의(公儀)이고, 호는 성현(惺軒)이다. 아버지 임노직(魯直)은 선비였고, 형은 1895년(고종 32)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향일지사 임승주(林承周)이다. 임한주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가학(家學)을

전수받았으며, 장성해서는 이설(李奭)과 김복한(金福漢)²⁾을 찾아가 성리설과 예론을 수학함으로써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호론적(湖論的) 학풍을 계승하였다. 임한주는 형 임성주와 함께 1895년 음력 11월 김복한·이설·안병찬(安炳贊) 등이 홍주의병을 일으킬 때 참여하였다. 그러나 홍주의병은 거의한 지 3일 만에 홍주군수 이승우의 배신으로 와해되었고, 동지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유림이 주축이 되어 파리장서운동(巴里長書運動)을 전개할 때 이에 참여하였다. 파리장서운동은 1차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프랑스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한 청원서를 보낸 것으로 영남과 호서지방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임한주는 호서지역에서 운동을 주도한 김복한의 권유를 받아 장서에 서명하고 참여하였다. 장서운동 참여 후에는 전국의 인민을 대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여 관직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항일투쟁의 대오에 참여하여 꺾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파리장서운동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임한주는 1919년 6월 피체되어 일제 경찰의 심문을 받았다. 홍성과 공주를 거쳐 1919년 6월 24일 대구로 이송된 뒤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20년부터는 덕명의숙(德明義塾)에서 한동안 후학을 양성하였다. 덕명의숙은 평택 임씨 충정공파 종중에서 청양군 화성면에 세운 산천재(山泉齋) 안에 개설한 학당으로, 독립운동가 다수가 여기서 배출되었다. 독립운동 군자금을

2) 김명동은 거유이며 의병장 김복한 선생의 아들이다. 그는 홍성 출신으로 공주에서 활동하여 3·1운동 가담, 신간회 창립에 기여하고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해방 이후 1, 2대 국회의원을 지낸 기독교 목사였다. 김복한 선생 가문의 위인들은 후세에 중요한 사명감을 남긴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이다(이균영, 1993: 100).

모은 임경호(林敬鎬)와 임궁호(林兢鎬)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후 민족운동을 위해 노력한 스승 김복한과 이설을 포함한 전양진(田穰鎭) · 이상구(李相龜) · 이식(李弼) · 김덕진(金德鎭) 등 홍주의병을 비롯하여 한 지사들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는 역사 기록자의 임무도 자임하였다. 1927년에는 김복한의 문인들이 홍성에서 유교 부식회(儒敎扶植會)라는 민족운동 단체를 결성하자, 여기에 참여하여 청양의 화성에 설립된 성동(聖東) 지부장을 맡았다. 후진 양성 외에도 임한주는 홍주의병장 출신으로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한 김복한과 파리장서에 서명하여 옥고를 치른 전양진의 행장을 썼다. 그의 형인 임승주의 묘비문을 비롯하여 경술국치 때 자결한 이근주, 대마도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이상구 의병장, 홍주의병 출신으로 파리장서에 서명하고 옥고를 치른 김덕진 등의 묘갈명도 지었다. 1907년 군대해산에 항거하여 벌인 서울 시위대 시가전에서 전사 순국한 참위(參尉) 이충순(李忠純)의 약전을 짓기도 하였다. 특히 1915년 42세 때는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1895년과 1906년 2차에 걸쳐 일어났던 홍주의병의 사적을 상세히 담은 『홍양기사(洪陽紀事)』를 저술함으로써 의병운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³⁾

3. 3·1운동 인물과 지명

1) 목암 이종일(1858~1925)과 태안

이종일은 1858년 충남 태안 출생하였으며,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고 15세에 상경, 김윤식(金允植) · 이상재(李相宰)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882년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와 정3품의 위계를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임한주 자료 참조.

받았다. 1898년 대한제국민력회(大韓帝國民力會) 회장, 제국신문사(帝國新聞社) 사장이 되었다가, 이듬해 고종황제 탄신일 기사에 ‘성수만세(聖壽萬歲)’를 ‘성수망세(聖壽亡歲)’로 오식(誤植), 불경죄로 투옥되었으나 그를 중상하는 측의 고의적인 행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다. 1906년 천도교에 입교(入敎), 『천도교회월보』의 월보과장(月報課長), 인쇄소인 보성사(普城社)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3·1운동 때는 자신이 직접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이어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3년 형을 선고받고 2년 반 만에 가출옥하였다. 출옥 후 조선국문연구회(朝鮮國文硏究會) 회장에 취임, 한글맞춤법 연구에 이바지하였지만 선생은 대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나 가정은 돌볼 겨를이 없어 영양실조로 아사 순국하였다.

민권의 쟁취가 국권을 수호하는 첩경임을 주장하여 민중 계몽을 위한 제국신문을 간행하였고 오직 나라의 부강과 독립과 안민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였다. 조선국문연구회(朝鮮國文硏究會) 회장에 취임, 한글맞춤법 연구에 이바지하였다 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애국적 활동은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2) 홍성 3·1운동과 파리장서운동 참여한 이길성

홍성군 장곡면에서 벌어진 햇불독립만세운동은 3·1운동이 지방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돌아난 시위의 한 형태다. 그해 3월에 평남 용강군, 함북 길주군, 충북 청주군 주민들이 야간에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하순부터는 충남으로 번졌다. 홍성의 대표적인 만세운동 형태이기도 했다.

1919년 4월 초 홍성군에서 햇불만세운동이 벌어졌다. 한 곳이 아니라 군내 여러 지역에서였다. 장곡면에선 4월 7일의 공격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지기 사흘 전에 햇불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윤행중, 윤익중, 윤낙중 삼형제의 주도로 전개된 운동이었다.

경신학교 2학년이었던 윤낙중이 2월 말 중앙고보 4학년인 형 윤익중으로부터 만해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하는 3·1운동 소식을 듣고서였다. 윤익중과 윤낙중 형제는 독립선언서 100여 장을 펴고 3월 20일 낙향한다.

고향에 있던 윤행중 및 이웃 주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4월 4일 매봉산에 올라 햇불을 올리면서 독립 만세를 고창했다.

4월 5일 밤 홍동면 신기리 주민 100여 명이 마을 뒷산에 모여 불을 피우면서 만세를 불렀다. 4월 7일 구항면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햇불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구항면의 햇불만세운동은 의병장 이설의 제자였던 이길성이 주도한 것이다.

여기서 이설은 거유 김복한의 스승이나 외사촌 형이었다. 늘 김복한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 의병투쟁이나 성리학적 대의를 논의하고 전개했던 스승이며 형이었다. 김복한은 1895년 8월 을미사변과 11월 단발령 공포에 계기로 무력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이처럼 이설 스승의 절개와 그 뜻을 펼친 제자인 이길성은 3·1운동의 중심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인사들이 중심되어 전개한 것에 유림이 빠진 것을 대성통곡한 인물들 중의 하나였다.

이들 김복한, 이길성 등은 심산 김창숙이 경상도, 충청도 지역을 돌며 접촉한 인물이며, 이들은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일본의 만행을 고발한 유림 최대 독립운동이 “파리장서운동”이다. 3·1운동의 정신이 유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파리장서사건에 참여한 자체가 이길성의 실천이었다.⁴⁾ 이길성은 유학자이면서도 결단으로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결심하고 집에서 ‘大韓國獨立萬歲(대한국독립만세)’라고 쓴 큰

종이 깃발을 만들었다. 이길성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월산 남쪽 기슭에 올라 이 깃발을 세우고 횃불을 올리면서 독립 만세를 부른다.

일제 군경의 총격으로 일단 하산하지만, 이길성 등 5명의 시위 주도자들은 장소를 이동해 산 정상에서 흥성시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만세를 불렀다. 횃불만세운동은 평화적인 형식의 시위였지만 일제의 대처는 폭압적이었다. 무차별 사격으로 2명이 죽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으로 체포 구금된 13명이 태형을 당했다.

3) 논산 강경의 3·1독립만세운동과 상해소년단 활동

2019년 3월 3일 시와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강경 독립만세 운동은 충남 최초로 1919년 3월 10일 오전 10시 일제가 설치한 강경읍 옥녀봉 신사(神社·일본이 황실의 조상이나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을 신으로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 앞에서 강경 장날을 기해 기습적으로 펼쳐졌다.

당시 500여 명(추산)의 동포들이 강경 옥녀봉에 모여 엄창섭(1892-1977) 선생이 먼저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뒤이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흥교동을 누비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강경 시장을 경유할 때에는 군중과 장꾼들이 합세하여 1,000여 명이 넘는 숫자로 불었다. 3월 10일과 3월 20일에 2차에 걸친 만세운동은 추병갑(1903-1976), 엄창섭 등에 의해 실제로 독립만세시위를 기획하고 태극기를 준비하여 논산 강경 장날에 다수 군중을 규합하여 대한 독립 시위를 주도하였다. 태극기를 준비하여 만세시위를 하다가 피체되었다.⁴⁾

4)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avagai&logNo=223384809478>.

5)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List.do?goToCode=20001>.

저항정신이 거셌던 강경은 1924년 10월 11일 강경성결교회 김복희 교사(강경소학교 여훈도)의 주도 아래 62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김복희 교사는 면직당하고 학생들은 퇴학 처분당했다. 배후에는 백신영 전도사가 있었다. 신사는 3종류가 있다.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관공립 신사), 전범(일본전쟁영웅)들을 숭배하는 신사(창건신사) 신앙적으로 신을 숭배하는 신사(거류민 봉제신사) 일본은 천리고, 남묘호렌계교, 동방요배로 일본을 경배하도록 종교적 침탈행위도 자행하였다.

이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국내 최초 침례교회가 강경에 건재하였다. 옥녀봉에는 1908년 일제에 의해 세워진 신사가 있었는데 1940년대에 그 신사가 낡고 협소하여 다시 크게 건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강경침례교회 대지가 필요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1942년에 침례교 지도자 32명을 원산의 헌병대로 끌고 가서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그때 동기 명의자 김재형, 전치규 목사도 함께 끌려갔는데 전치규 목사는 함흥형무소에서 1944년 2월 13일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이러한 항일의 역사적 현장은 한국 최초침례교회 7자형교회 강경침례교회와 강경 주민들이 건재함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강경은 최초 일본역사수업 거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선 총독부의 지침으로 “조선역사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역사를 가르치라”는 명에 의하여 조선 역사선생을 내보내고 일본 역사선생이 부임하여 가르쳤다. 이때에 상해어린이 소년단⁶⁾ 8명은 일본역사 수업을 거부하여

6)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논산 강경 지역에 있었던 소년 계몽 운동 단체. 3·1운동 이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각종 청년단체나 종교단체 등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족해방을 위한 일꾼으로서 성장하기를 지원하였다. 1923년 어린이날 제정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지로 미쳐 소년 계몽운동 단체 조직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상해소년단은 강경 지역 청소년계몽운동과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상해소년단의 주요사업은 강경 지역 청소년계몽운동과 무산계급 아동을 위한 노동야학 등의 운영이었다. 노동야학의 수업시간은 매일 19시부터 22시까지로 월사금과 입학금은 무료였다. 과목으로 초등과는

교장실에 끌려가 호통을 당했다. 그러나 행동반장 윤관석은 찢종지를 들어 교장의 이마에 던지고 자퇴의 길을 갔다. 그 후 독학을 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자금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운동을 하였다.

4. 신간회 운동

1) 월남 이상재(1850~1927)와 서천 한산

이상재 선생은 1850년(철종 1) 충청남도 현 서천 한산면에서 태어났으며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는 박정양을 따라 일본에 다녀온 후 개회사상가들과 어울리면서 개화에 눈을 뜨게 된다. 1884년 홍영식의 추천으로 오늘날 우체국에 해당하는 우정국 주사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김옥균, 홍영식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갑신정변이

산술·일어·조선어·습자·작문·주산, 중등과는 산술·일어·조선어·지리·역사·이과 등이었다. 교사는 상애소년단 임원인 양기중·박용국·정인홍(鄭仁興) 등이 자원봉사로 열성을 다하였다. 또한, 설날 등을 맞아 빈민 구호를 위한 위안대를 조직하여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주었다. 1925년 11월 강경공립보통학교 훈도 남정관(南廷琯) 등은 4~5학년 생도에게 상애소년단 탈퇴를 강요하였다. 학생들이 이를 거절하자, 학교 당국은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들 학생은 상애소년단 사무실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상애소년단은 긴급총회를 열어 첫째로 강경 소년 운동을 저해한 강경공립보통학교 훈도 남정관의 폭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학무당국에 교섭하며, 둘째로 질문위원 홍한표·소철영·양기중·박용국 4명을 파견하여 학교 당국에 질문하며, 마지막으로 경고문을 작성하여 남정관에게 보냈다. 상애소년단의 노력으로 사퇴 진정과 함께 징계처분은 철회되었다. 김천소년단에서는 강경 지역의 상애소년단에 격려문과 교사 남정관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격려문의 주요 내용은 “총과 칼을 들고 인류를 굴복하게 하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다만, 어린 사람의 손과 힘으로서 능히 인류 가운데 행복의 서광이 비치어 올 것이다. 우리 동무들은 더욱 기뻐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자.” 등이었다. 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가극회도 주민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성대하게 치렀으며, 특히 야학생 조양순(趙良順)의 연설 『오늘 말씀』은 청중들 심금을 울렸다. 이와 함께 조선소년군 총본부 선전사진대는 논산 지역으로 내려와 활동사진대회를 개최하여 300여 명 청중의 환영을 받았다. 상애소년단은 음악가극대회 개최와 공립보통학교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등 강경 지역 소년계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출처] <http://www.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1456>.

실패하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1887년 청나라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벌여 미국과의 수교를 성사시키고 귀국하였다.

서재필 등과 함께 1896년 독립협회를 만들고, 부회장이 되어 만민공동회를 열어 국민계몽운동을 펼쳤다. 1898년 독립협회가 정부의 탄압과 황국 협회의 방해로 해산되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갔다. 1902년 이상재는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2년간의 옥살이를 했다. 이때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출옥 후 황성기독교 청년회(YMCA)에 들어갔다. 1905년 을사조약 후 다시 관직에 나갔으나 1907년 조선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3·1운동에 관련되어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 난 이상재는 각종 강연회, 토론회를 통해 계몽 운동을 펼쳤다. 광무 2년인 1898년에는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 부회장을 지내면서 민중계몽에 전력했으며 탐관오리들의 부패상과 비정을 탄핵하시다가 정부대신들의 미움을 받아 국체개혁을 음모하였다는 이른바 개혁당 사건으로 구금되기도 하였다. 한국 YMCA가 단독으로 세계 YMCA 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 한국 YMCA 창설에도 기여하였다.

그의 일대기는 1910년대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가는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눈물과 슬픔에 찬 동포들과 동고동락을 전개하였다. 그는 여성운동을 일으켜 1922년 YWCA 발기대회를 일으켜 선전하였다. 또한 소년척후대운동을 일으켜 보이스카웃운동을 전개하였다(전택부, 2001: 164-165).

1921년에는 조선교육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어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했고 1924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이 되었다. 1927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조병옥, 안재홍, 홍명희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신간회의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으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각종 강연회와 지방순회강연 등 폭넓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그는 신식지도자들이 양복을 즐겨 입었지만 그는 양복을 입지 않고 수목두루마기와 편리화⁷⁾를 즐겨 입어, 일제하의 국산품 애용 운동의 산표본이 되었다.

돈의 문제에서도 매우 융통성이 있으셔서,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산다. 세상만사가 돈 없이 되는 일은 없다. 도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조선인은 종래에 실업을 천시한 까닭에 이 모양이 되었다.”고 말하셨다(전택부, 2001: 176). 또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음을 후대나 특히 한용운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당시의 상황에서 이상재는 윤치호의 견해⁸⁾와 크게 다르지 않아,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수습적인 입장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3·1운동의 비폭력 운동으로 조성되는 데에는 천도교 손병희의 역할도 크지만 중요한 이념적 취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상재 선생이시다. 이처럼 일제 폭압기에 국내에서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7) 발이 편한 우리 전통의 민속신발, 고무신을 일컬음. 당시 고무신은 민족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고무신의 생산은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생고무에 황을 더하고 가열해서 신발 재료를 만드는 '가황(加黃) 기법'이 1839년 미국에서 개발되면서 본격화했다. 가황 기법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고무신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1919년 8월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우리나라의 첫 고무신 공장인 대륙고무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조선총독부가 3·1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유희정책을 펴면서 부산 등 전국에 신발공장이 잇따라 설립됐다. 고무신의 판매 규모는 1921년 한해에만 80만 8천 켤레였다. 이 중 70만 켤레는 일본에서, 국내 생산은 10만 8천 켤레였다. 그 국내 생산이 국내 국산품 애용의 중요한 표본이 되었다.

8) 윤치호는 YMCA 운동에 적극적인 인물이며, 이상재의 14세 연하의 동지이다. 사회활동으로는 YMCA 청년회 총무·회장, 1925년 11월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 회장, 1929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 제3회 범태평양회의에 한민족 대표자로 참석하였고, 1931년 재만주한인동포위문사절단 단원으로 만주에 다녀온 뒤 흥업구락부 회장을 역임했고, 1928년부터 1937년까지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 제9대 회장을 역임했다. 1945년 2월 광복 직전에는 귀족원 의원에 선임되었다. 조선인 최초의 영어 통역관이기도 하였다. 한국인 스스로 자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다.

세상을 열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한 월남 선생은 당초 신한회(新韓會)라는 명칭은 신간회(新幹會)로 하여 민족자치 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전환기 조선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이균영, 1993: 96-97).

민족주의의 선구에 섰던 이가 신간회 창립시 이상재 회장이셨다. 나이 74세 고령에 조선일보계 대표로서 민족주의 운동의 자치 운동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와중에 민족의 단일당 신간회 결성을 진행하였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결합 다양한 종교의 결속을 통해 1927년 1월 20일 창립 발기인을 선출하고 300명이 넘는 창립총회는 월남이 참석하지 못하고 와병 중이었다(전택부, 2002: 190). 1917년 3월 29일 이상재 선생은 별세하였다. 이후 신간회, 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협회 등 각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사회장으로 치리기로 하여 장의위원장은 윤치호, 안재홍, 백관수, 김성수, 송진우, 홍명희 등 114명이 구성되었다. 장의비는 조선일보사 5백 원을 비롯하여 단체가 참여하고 개인으로는 윤치호 5백 원 등 총 6천만 원이 답지되었다(전택부, 2002: 194).

사회장으로 사상 초유의 성대한 분위기였다. 영구를 모시는 특별 열차가 경성역에서 군산까지 가는 동안 정거장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군산을 경유하여 당시 서천 한산면 종지리에 안장되었다. 그는 이색의 16세대 후손답게 고종을 끝까지 따르던 조선의 충신이요, 새 문명의 기독교에 전념하여 민족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사이다.

경건주의나 비관론으로 빠지기 쉬웠던 일제 침략기에 월남 이상재의 위대한 정신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손자나 증손자뻘 되는 중앙기독교청년회의 학생들과 의중계 지내고 아들과 손자의 죽음을 보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행동하셨다. 사람의 정에서 애 통한 경험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도 풍자와 해학으로 민족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셨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박과 풍자 그리고 비전으로 몸부림치시다가 가신 분이시다(전택부, 2002: 209-210).

2) 노명우(1900-1936)와 공주, 강경, 부여

노명우는 1900년 충남 부여 규암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개신교 교회의 집사와 권사로 지냈다. 그 고조부와 조부까지 후사가 없어 양자로 계속 입양되어 벼슬을 몇 대 걸쳐 하지 못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다(허중, 2021: 190-193).

그는 1919년 공주 영명학교 재학 중 3·1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공주영명학교 교사 김관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민족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1919년 유관순의 오빠 유준석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을 촉구하는 전단 1천여 매와 태극기 4개를 제작하였다(허중, 2021: 195). 그의 시위는 매우 열정적이었기에, 시위 현장에서 일제 관헌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허중, 2021: 196).

문화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노명우는 익산의 초등학교 삼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삼일운동 이후 1920년 중반까지 교육활동과 문화활동, 지역 구제활동에 전력하였다. 전반적으로 문화운동이 심화되면서 사상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근구체회 활동을 익산에서 벌여다 강경으로 오면서 1920년대 중반 이후 강경에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이른다(허중, 2021: 198). 식민지 사회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은 당시의 민족과 사회 현실을 타파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독립과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려던 노명우는 강경에서 청년·노동

운동을 전개하였다. 강경에서 ‘강경각단체연맹’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사회운동을 벌인 바 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의 압박과 경찰에 탄압에도 무산자 계급의 옹호를 주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충청지역 신문, 잡지 기자들이 결성한 ‘호서기자단’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허종, 2021: 200-201).

장기간의 활동 속에서 부여군 일대에서 부여군의 각청년 단체를 규합하여 1927년 9월 ‘신간회 부여지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여에서 신간회 부여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어려웠고, 1029년 ‘부여군 청년동맹발기준비위원회’를 조직 활동 전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준비로 끝났다. 이처럼 부여 공간은 보수적 성향과 의타적 성질로 단결과 협력이 부족한 보수적 성향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인물의 열정이 일제 통치시기에도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기능하는데 가능하게 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으로 지탱한 시대의 사회운동은 가족사의 비극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Ⅲ. 충남 사회운동의 통일교육적 시사와 논의

충남지역의 각 부분운동의 활성화는 각 해당 지역의 인재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논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 각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일제에 대항하는 운동을 강화하고 신간회 지회에 있어서 홍성, 공주, 예산, 당진, 서산, 천안 등에서 설립되고 부여에서 전개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사회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활동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그에 대한 사회운동의 저변

확대와 역량 결집이 이루어졌다(허중, 2021: 160).

각 지역에서 일어난 활동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 보여준 항일 사회운동은 오늘에 와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운동의 성격상 지향하는 바를 잘 설정하면 공동체의 위력을 보여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통일교육도 한 시대의 사회운동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학농민혁명부터 3·1운동, 신간회 운동은 민족적 운동을 충남 지역에서 과감하게 전개하였다. 물론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충남에서 성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철저하게 지역적 종교적 무장으로 굳건히 자리났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 논문의 입장에서 보면, 동학농민 혁명의 충남지역 사건으로부터 신간회까지 사상 무장과 전투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무장된 농민군과 동학군의 활약한 동학농민혁명 이후 철저하게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대항하려는 세력이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병활동은 청양, 노성, 홍주 등에서 최익현 선생과 김복한 선생의 논의를 받아들인 많은 노력들이 개진되었다. 동학농민 혁명의 기치와 부국안민의 정신에 대한 기존 유학층들의 철저한 한계 인식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유린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의 적양척왜의 정신 등은 의병활동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편 철저한 무장투쟁이 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일제의 탄압을 받는 경험을 한 동학 이후 천도교는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평화적 시위를 조성하여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3·1운동을 전개하였다. 가진 것은 몸과 동지적 연대를 통해 3·1운동은 충남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종교적인 개벽, 메시아, 불신 정신은 3·1운동의

전국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충남 지역적 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신간회 활동은 민족 내부의 사상적 통합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그 자체로 오늘날 통일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우금치(티) 전투와 그 외 논산, 당진 등 거의 전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투는 국가가 안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외세의 무력에 의해 내치를 평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국가 자체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례를 보여준 사건이다. 1894년 이후 조선은 외세 일본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투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한 전통은 오늘날 통일교육에 있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안보 역량을 길러나 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련의 동학농민전쟁, 의병활동, 3·1운동 그리고 신간회 사건을 통해 충남 사회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시사를 주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충남 사회는 통일교육적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운동은 지역의 인사들과 여건들이 잘 결합 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되,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건실한 사회의 평화는 서로의 안정과 지역적 발전을 위한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남 동학농민혁명과 의병 운동과 3·1운동 정신 그리고 지역 신간회 활동은 바로 지역적 연대와 종교적 지향점을 주민의 행복에 기초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 운동 노력을 오늘에 되새겨 통일교육에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통일교육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파악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보적인 상황을 잘 이용하는 통일교육적 지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안보 인식을 지속 가능하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본에 대항한 동학농민운동, 의병 및 사회운동은 내적인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1900년대의 의병운동은 개화파 관찰사, 군수로 인하여 더욱더 내부적으로 고충을 겪었다. 이완용은 처음에는 독립협회의 주도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미파, 친러파 그리고 급기야는 친일파로 매국의 길을 걸었다. 유약한 평화론자들은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강력한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일제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개화파들은 변절하였다. 조선의 역량을 터무니없이 과소평가하고 일본에 항복하였다. 이러한 구차스런 행태는 오늘에도 재현될 수 있다. 친일로 무장된 개화 관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 의병 활동을 저해하였다 (박민영, 1998: 62-63). 이처럼 진정한 통일 안보 환경을 조성할 통일 교육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분단 관리에서 우리 자체 안보 역량을 갖추면서 미국과 일본을 이용하든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이용하든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며 영구적 독립을 유지하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다(김열수, 2010: 19). 통일국가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역량으로 남북의 대등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얕보게 되어 무력 통일을 꿈꾸게 되거나 자체적인 역량을 기를 생각을 안 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기대는 구차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 분단 상황에서 대북 견제와 무기 증강으로 인하여 강경한 안보 역량을 길러 남북 간의 상호 역량 이해를 전개하는 길을 찾는

노력도 요청된다. 통일교육은 언제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며, 남북 갈등이 일어나는 조기에 평화 여건을 구축하는 통일교육적 논의와 안보의식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은 ‘평화 능력과 안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 남북 화해와 상생 무드가 진척되든지 더욱 분단적 상황으로 갈등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안보 유지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애국 애족을 강화하는 위정척사의 위병운동의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졌듯이, 통일교육도 통일로의 길을 보존하며 전개되어야 한다. 의병 및 독립운동들은 당시 사회적 경향을 확연하게 파악하고 전개되었다. 통일교육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남북 및 미중알려 관계를 잘 파악하고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국의 평화통일 의지는 안보 역량에서 주변 국가의 설득을 얻어낼 수 있다. 구한말이나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자국의 안보 역량, 즉 국방력이 우수해야 주변 다른 나라나 어느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동조 입장을 보일 것이다.

충남의 의병과 사회운동들은 지역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한 운동이었다(김성범, 2013: 166-167).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도 존재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절하적 입장은 제거되어야 한다. 물론 많은 독립운동이 좌절된 바도 있다. 그러나 실제 예를 들자면 항간에 주장하였듯이 국내외적으로 충남의 동학혁명, 의병 운동 그리고 3·1운동, 신간회 운동으로 이어진 민족 화해와 협력을 이끌고자 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평화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의지를 담보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대북 강경적 입장을 내세우든 군비 증강을 통해 남북한 전쟁 억지력을 강조하든 국민적인 통합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국민들이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은 매우 위중한 남북 대치 상황이지만 안보 통일을 내세우면서 남북한의 긴장 조성을 완화하고 독립 정신의 노력들과 같은 경우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시국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유머와 해학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안보 역량이나 대북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제대로 현실을 파악해 ‘지속 가능한 안보 평화 보장 과정’을 학습하는 안보 통일교육 과정이 요청된다.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자유, 평화, 안보, 평등, 독립운동, 6·25 전쟁 등에서 보다 냉철하면서도 민족 포용적인 사고를 갖는 노력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 사회에서 성장되는 것임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의 좌우가 서로를 인정하고 지나친 극우, 극좌로 퇴화되지 않는 상식적 통일교육을 계속 주장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IV. 결론

그러한 차원에서 구한말 우리의 선각자인 김옥균의 인식은 참으로 통탄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조선을 위하여 계획하려면, 청국은 본래부터 족히 믿지 못할 것이요, 일본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두 나라는 각기 자기 나를 유지하기에 남는 힘이 없는 처지입니다. —〈중략〉— 일본은 전년(1885년)부터 무슨 생각을 에서인지 일시는 열심히 우리나라 일에 간섭하더니, 한번 번고(1884년 갑신정변을 뜻함)가 있는 뒤로는 갑자기 이 태도를 버리고 돌아보지도 아니할 모양이오니, 역시

극히 믿을 수 없사옵나이다(김옥균, 102-103).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하면서도 김옥균의 생각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개화당의 주류적 생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의 침탈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오판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민중과 유생들은 비록 시대 상황을 못 읽었지만 반외세의 중대한 인식을 동학혁명, 의병활동 속에서 분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고의 난맥 속에서 절절히 준비하고 침략의 의도를 갖고 있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구한말의 처지를 그래도 미래적 지향을 위해 분투하였던 세력들이 존재하여 움직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보이는 상황이나 동북아 및 세계 정세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 동학혁명 세력과 의병들 그리고 3·1운동 세력, 신간회 운동들은 민족 독립을 위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설정해 나갔던 역사적 교훈이다. 이 속에서 유학자들의 “파리장정운동”과 “상애소년단” 활동을 전개한 충남인들의 결기와 지속력은 앞으로 갈 수 있는 독립의 정신이 되었다. 정부가 없더라도 민초들이 안보 역량에 대한 인식과 독립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저항 및 미래 정신을 통일교육은 남북 관계의 장기적 관리와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충남의 동학농민혁명, 의병활동 그리고 3·1운동, 신간회 운동은 민족 통합 운동이며 독립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들을 주창한 인물들의 희생과 각오를 오늘날 통일교육에 되새겨야 한다. 통일교육은 매일 안보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 무장되는 국가 안보, 사회 안보, 개인 안보를 구축하는 현실적 안보 통일교육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치열한 상황 속에서 화목한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구성하는 안전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의 환경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마치 일제 침략기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과 합법, 비합법적인 자치운동을 전개한 신간회의 결속에서 찾아봐야 한다.

통일의 길은 동학 운동과 3·1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지속하여야 할 평화통일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진 동학 운동과 만세 운동은 거국적인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일제 탄압에 대한 독립운동의 격렬한 항거와 평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친일파들이 엄존했던 시기에 많은 민족 선각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민족의 결기를 갖고 독립으로 가는 거국적 길을 조선 말기부터 20세기 초에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 정신의 길이 오늘의 통일로 가는 길과 일맥상통하는 거국적인 참여의 길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운동과 동학혁명 운동 그리고 의병운동, 3·1운동, 신간회 운동의 정신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운동을 계속 이루어졌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이 장기적으로 독립과 자주에 입각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언젠가의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지속적 확장성을 갖게 하며 개방적 논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근대한국 개벽종교 공무모임(2024), 『제14회 근대한국 개벽종교답사 자료집(공주지역)』.
- 김성범(2013), 「19세기말 20세기초 한국과 베트남의 민족사사 경향과 사회적 책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편, 『유학연구』, 제28집, pp. 165-196.
- 김옥균, 이광린 해제(1985), “지운영사건 규탄소”, 『한국의 근대사상』, 서울: 삼성당 한국사상전집 6. pp. 97-104.
- 梶村秀樹, 김선경 옮김(1986), 『한국근대사 개설』, 서울: 도서출판 한울.
- 박맹수 · 정선원(2015), 『공주와 동학농민혁명』,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박민영(1998),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균영(1993), 『신간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정선원(2022), 「동학농민혁명시기 공주전투연구」, 원광대박사학위 논문.
- 허중(2021), 「일제 강점기 노명우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대구사학』, 143: 189-220.
- <https://www.bigkinds.or.kr>

A Study on Unification Education Current Affairs of Social Movement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the Chungcheongnamdo Region

Chan-Seok Park*

Abstract

The path to unification is in line with the Donghak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that must continue today. What can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future is that the Donghak Movement and the Manse Movement that took place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were a national social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a fierce resistance and peace movemen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oppression. This path of independence is a path of national particip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ath to unification today. In this sense, the fact that the spirit of the Unification Movement, the Donghak Revolutionary Movement, the Righteous Army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Singanhoe Movement continued to form local movements in the South Chungcheong region shows that the spirit of the local residents was based on long-term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Therefore, although the division is prolonged,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continuously expanded for someday unification and a connection with open discussion can be found.

Keyword: Independence, unification, Chungnam Donghak Revolution, volunteer army activities, March 1st Movement, Singanhoe, unification edu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pckmy@gjue.ac.kr)